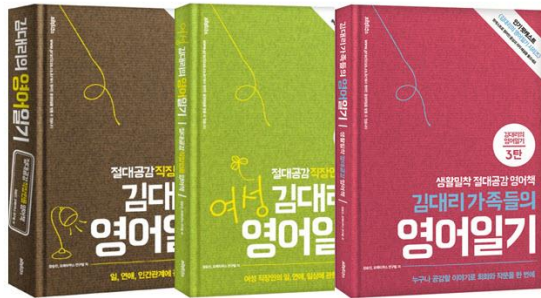


함께 쓰는 영어 일기 4

<광고>



In Day-to-Day Use

누구나 공감할 내용으로 학습 효과 Up

팟캐스트로 들으면서 학습 효과 Up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왔다. 매일 가족들이 그리고 보고 싶지만, 막상 집을 가려고 하면 귀찮다. 그래서 항상 미루고 미루다가 빈 반찬통이 쌓이면 그제야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이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하면, 일단 마당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반갑게 나를 맞이해준다. 도대체 어디갔다가 이제 왔냐는 듯이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신나게 흔든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아 이제 진짜 집이구나 하는 편안함이 든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과, 따뜻한 집의 분위기는 서울 생활에 지친 내게 활력을 준다. 밥을 먹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랑 엄마가 나를 대견하게 바라보신다. 나가서 살더니 설거지도 하고 철들었다고 좋아하신다. 집을 나와서 살아 보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깨닫게 됐다. 설거지, 빨래, 방청소 등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꼈던 일들이 지금은 온전히 나의 일이 된 셈이다.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다.

I visited my family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I had missed them every day; but, when the time came to actually plan to visit them, it suddenly felt like a bother. I had procrastinated until the last minute when all of my food storage went empty. When I reached my parents' house after a long bus ride, two of my dogs in the yard welcome me. With their ears all pulled backward and tails wagging, they seem to ask me where I've been and what took me so long to return. When I open the door, my grandparents give me a warm hug. Then I feel that I'm really home. My mom's food that I missed for so long and the warm atmosphere of the house help me recover from my tiring life in Seoul. When I do the dishes after dinner, my grandmother and mother give me a very proud look. They say that living alone in Seoul made me grow up enough to do the dishes on my own accord. Living on my own, I realized how much I had been helped by my family. Washing the dishes, doing the laundry, and cleaning my room - I hadn't had to do these things, but now they all feel like work I have to do myself. I love having a family that welcomes me. I'm happy to have a place that waits for me.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왔다.

I visited my family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매일 가족들이 그리고 보고 싶지만, 막상 집을 가려고 하면 귀찮다.

I had missed them every day; but, when the time came to actually plan to visit them, it suddenly felt like a bother.

그래서 항상 미루고 미루다가 빈 반찬통이 쌓이면 그제야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이다.

I had procrastinated until the last minute when all of my food storage went empty.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하면, 일단 마당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반갑게 나를 맞이해준다.
When I reached my parents' house after a long bus ride, two of my dogs in the yard welcome me.

도대체 어디갔다가 이제 왔냐는 듯이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신나게 흔든다.
With their ears all pulled backward and tails wagging, they seem to ask me where I've been and what took me so long to return.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When I open the door, my grandparents give me a warm hug.

아 이제 진짜 집이구나 하는 편안함이 든다.
Then I feel that I'm really home.

오랜만에 먹는 집밥과, 따뜻한 집의 분위기는 서울 생활에 지친 내게 활력을 준다.
My mom's food that I missed for so long and the warm atmosphere of the house help me recover from my tiring life in Seoul.

밥을 먹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랑 엄마가 나를 대견하게 바라보신다.
When I do the dishes after dinner, my grandmother and mother give me a very proud look.

나가서 살더니 설거지도 하고 철들었다고 좋아하신다.
They say that living alone in Seoul made me grow up enough to do the dishes on my own accord.

집을 나와서 살아 보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깨닫게 됐다.
Living on my own, I realized how much I had been helped by my family.

설거지, 빨래, 방청소 등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꼈던 일들이 지금은 온전히 나의 일이 된 셈이다.
Washing the dishes, doing the laundry, and cleaning my room - I hadn't had to do these things, but now they all feel like work I have to do myself.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좋다.
I love having a family that welcomes me.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다.
I'm happy to have a place that waits for me.